

구미 제4 국가 공업단지 조기 조성 건의안

국민민복을 위한 국제화·세계화 시책추진에 애쓰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 먼저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적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등을 통한 개혁과 사정으로 과거의 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여 많은 국민들로 부터 성원을 받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UR협상 타결로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기초로 하는 WTO 체제가 출범되어, 이념과 사상보다는 경제를 우선하는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국 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행정 조직과 행정 구역의 개편을 추진하고, 1995년을 국제화·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아 정부의 모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제화·세계화는 국가간의 개념만이 아니라 국경이 없는속에서의 기업간
지역간, 도시간의 전방위적이고 무한적인 개념으로서,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자타가 공인 하다시피 국내 최대의 첨단 전자산업 도시로서 그동안 3차에 걸쳐 5,287천평의 국가 공업단지를 조성 393개업체가 입주하여 '94 년말 기준 73억\$ 을 수출하였으며, '95년 수출목표는 8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개발된 5,287천평의 공장용지는 이미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도
공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으나 분양할 용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장용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90. 12월 구미시 양포동, 산동면일원 237만평에
구미 제4 국가공업단지의 조성을 건의한 바, '91. 7월 이지역이 건설부 공고,
제 76호로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공고되었고, 같은 해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구미국
가공업단지 확장개발 기본 계획 안이 작성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제4 국가공업단지의 조성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초 중앙 관련부처간의 협의 결과 도시계획의 재검토, 공단
조성으로 인한 오·폐수 처리문제, 지역간 균형개발 측면의 안동 국가공단 선 조성등
부처간의 이견이 있어 구미국가 공업단지 확장조성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지역
은 '97.7월까지 토지거래 규제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공단조성 예정지로 발표만 되고 '91.7월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공고
된채 공업단지 지정도 되지않은 상태로 있어, 사권이 제약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
고 있으며, 구미 국가공업단지 내에 공장을 확장 또는 신축하고자하는 기업은 용지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금년 3월 중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 및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구미 제4 국가공단 조성
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 월말 현재 입주 희망업체는 44개사에 140만평
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구미 제4국가 공단의 조성은 시급한 실정이므로,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 공단 지정 및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미시는 1995. 1. 1 부터 기존의 구미시와 선산군을 통합하여 도농 통합형 구미시로 새로이 발족되므로써 '92년초 구미 국가공단 확장조성에 따른 중앙부처 협의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시·군과의 경계와 관련된 도시계획 문제가 해소되었고, 구미시의 하수처리 시설도 현재의 1일 처리능력 135천㎥에서 '96년 상반기까지 330천㎥으로 증설되어 구미 국가 제4 공업단지가 조성되어도 오·폐수의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며 기타 도로 교통망등 공업단지 입지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사업을 해결하고, 기업의 공장용지 수요를 충족하며, 제약된 주민들의 사권 회복을 위하여는 하루 빨리 구미 제4 국가 공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지역 기업인과 30만 시민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이와 같이 사안의 중요성을 통찰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구미 제4국가 공업단지가 지정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구미시의회 의원 27명 전원의 뜻을 모아 건의드리오니 기업과 주민들의 여망이 헛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4. 25.

구 미 시 의 회 의 원 일 동